



<2017 신나는 예술여행>은

동네방네 들썩들썩

300여 예술단체가 참여하는 3,000여 회의 공연!

싱글벙글 대한민국

우리의 삶에 문화의 향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이 필요한

농산어촌, 도서산간, 산업단지, 혁신도시, 사회복지시설,
임대주택, 특수학교, 의료시설, 군부대, 교정시설 등으로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보내 드립니다.

<2017 신나는 예술여행>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신나는 예술여행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복권위원회가 함께하는 복권기금 문화나눔 사업입니다.

주최



후원



주관

stageone

협력



신나는 예술여행

www.lotteryarts.or.kr



2017

신나는 예술여행

EXCITING ARTS TOUR

“동네방네 들썩들썩,
싱글벙글 대한민국”

우리의 삶에 문화의 향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성민제 & 조운성 듀오 콘서트

2017년 6월 15일(목) 저녁 7시
대전 동구청 12층 대강당

■ 공연 소개

클래식과 재즈, 두 천재의 발칙한 만남

인체 사이즈와 흡사한 큰 악기를 자유 자재로 다루는 천재 더블베이스스트 성민제와 천재 재즈 피아니스트로 손꼽히는 조운성. 두 천재가 만나 이번엔 선보이는 공연은 클래식과 재즈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제작한 기발한 만남의 결과를 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두 천재를 함께 만나보시죠.

프로그램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C장조 바리에이션
모차르트	터키 행진곡
비제	카르멘 판타지 모음곡
몬티	차르다시
영화 '사브리나' 메인 테마곡	
카를로스 조빈	So Dance Samba
피아졸라	리베르 탱고
몬티	프레보

■ 출연진



더블베이스 연주자 성민제는 16세에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요한 마티아스 스페르거 더블베이스 국제 콩쿠르와 러시아 쿠세비츠키 더블베이스 국제 콩쿠르에서 연이어 우승했다. 2009년 4월에는 첫 번째 음반 <더블베이스의 비행 Flight of the Double B>이 독일 도이치 그라모폰 레이블로 발매하며, 국내외 세계에서 더블베이스계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2011년부터 본격적인 한국 활동을 시작한 성민제는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정명훈을 주축으로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7명의 라이징 스타와 '정명훈과 7인의 음악인' 무대에 올랐다. 2012년에는 원헨 클로스터 폴링 비블리오테크잘 메인 홀에서 기돈 크레머,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함께 앙상블 MUNIQUE로 데뷔했다. 2013년에는 프랑스 국제 음악제인 카잘스 페스티벌에 최연소 연주자로 참여했으며, 2014년에는 2집 앨범 <Unlimited> 발매 기념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2015년도 리처드 용재 오닐과 함께 공연한 <로맨티스트>와 피아니스트 지용, 멀티 뮤지션 정재일과 함께 슈베르트의 음악을 더블베이스 4중주로 연주한 <언타이틀드> 프로젝트를 통해 더블베이스의 음악과 레퍼토리 확장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한국보다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은 천재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프로듀서 조운성은 미국을 거점으로 세계 재즈 거목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이 시대 최고의 젊은 재즈 뮤지션으로 꼽힌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음악대학 클래식 피아노 학과와 미국 버클리음대 재즈 피아노학과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뒤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서 재즈학을 전공하면서 미국 전통 재즈의 섬세함을 기반으로 자유로운 자기 스타일을 만들었다. 그의 독창적인 연주 스타일은 허비 행콕의 눈에 띄어 아시아인으로서 최초로 전 세계에서 7명만 뽑는다는 델로니어스 몽크 재즈 인스티튜트 멤버로 발탁되면서 비약적인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 허비 행콕과 유럽 공연투어를 하고, 데이브 그루신, 테렌스 블랜차드, 웨인 쇼터 등 대가들과 공연을 하고, 수 많은 재즈 페스티벌에 참가하였으며, 프랑크 시나트라 Ronking Big Band 수석 피아니스트로 선임되어 활동했다.

■ 공연 문의

대전 동구청 문화공보과 042)251-4203
스테이지원 02)780-5054